

시끌장터가 전국명소로…장흥 토요풀물시장 르포



지난 5일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정남진 장흥 토요풀물시장'. 지역 명물인 한우와 표고버섯 등을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장흥=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우·표고·키조개 맛보자" 전국서 하루 6000명 몰려

"장흥 아니면 어디서, 이 가격에 입에서 살살 녹는 1등급 한우를 맛 볼 수 있겠어요?"

지난 5일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정남진 장흥 토요풀물시장'. 강변 둑자 주차장과 시장 인근을 꽉 메운 자동차 행렬이 장흥 토요시장의 유명세를 실감나게 했다. 이곳의 명물은 뛰어난 품질로 장흥 한우, 가족 단위나 단체로 찾은 관광객들 대부분은 전국 각지에서 장흥 한우의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외지인들이었다. <관련기사 2면>

시장 한쪽에 마련된 한우특화골목에는 모두 18개의 한우판매장과 30여곳의 식당이 들어서 있다. 점심 시간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장흥에서 나고 자란 한우와 표고버섯, 키조개로 이뤄진 '장흥삼합'을 맛보려는 사람들로 늘어선 줄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관광객들은 판매장에서 살코기와 지방이 섞인 마블링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한우를 시중에 판 한우를 시중에 판 30~4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면서 한번 놀라고, 불판에서 잘 구어진 한우를 맛보며 그 부드러운 맛에 두 번

놀랐다. 배부르게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장흥 관광안내 지도를 펼치며 다음에 들을 곳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

이날 하루 이곳을 찾은 사람만 무려 6000여명에 달했다. 이 같은 인기에 7년 전만 하더라도 1평(3.3m²)당 20만원에 불과하던 시장 내

땅값 20만→1000만원

특산품 팔고 관광수익

"FTA 걱정은 남의 일"

땅값이 현재는 700만~1000만원을 호가할 정도다.

입구 중앙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방문객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흥이 오른 사람들은 서슴없이 노래를 한 곡조 뽑아내기도 했다. 상인들의 얼굴에서도 여유가 넘치고 생동감이 흘렀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광우병, 소값 파동 걱정은 남의 동네 일로 여겨

질 정도였다.

장흥 토요시장은 지난 2005년 7월 주5일 근무제에 맞춰 국비와 군비 75억원을 들여 문을 열었다. 개장 7년을 앞둔 지금은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지역 대표 특산물인 한우와 키조개, 표고버섯, 헛개나무, 무산김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데다 국내 최초로 매주 개최하고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가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 시장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모두 장흥 특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인근 천관산과 편백숲 우드랜드, 장흥댐 등 주변 관광지도 큰 도움이 됐다. 최근에는 토요시장의 성공사례를 배우려는 전국 자체들의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장흥군 유영철 친환경농축산과장은 "지역특산품에 대한 군민들의 자부심과 낙후돼가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공무원들의 뜻이 하나가 된 결과"라고 말했다. /장흥=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기자 kykim@



여수세계박람회 D-5

예행연습 끝, 성공만 남았다

어린이 날 11만명 입장 마지막 리허설 막바지 전시장 연출·도로 공사도 박차

여수세계박람회(12일~8월 12일·이하 박람회)의 예행연습이 끝났고, 성공 개최를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막바지 전시장 연출과 도로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되는 등 본격적인 박람회 개막 준비에 들어갔다.

박람회 조직위는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 11만5200여명의 관람객을 박람회장에 입장시켜 실제와 똑같이 전시를 운영해 본 3차 예행연습과 해상문화공간 '빅오(Big-O)' 등에서 리허설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3면>

예행연습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이날 공개된 주제관·한국관 등 주최국 전시관과 아쿠아리움·대우조선해양·로봇관, 독일·스페인 등 국가관 등을 둘러봤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바다의 미래 가치 등을 알게워주는 주제관에서 뜻 깊은 시간을 보냈고, 아쿠아리움에서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연출하는 환상적인 모습을 만끽했다.

또 쓰레기 매립지의 환경을 살려낸 셀마카우의 경험을 소개한 싱가포르관은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박람회 '킬리 콘텐츠' 중 하나인 빅

오에서는 최대 70m까지 솟아오르는

해상분수쇼가 펼쳐졌고 레이저, 불꽃, 영상, 공연이 어우러진 초대형 창작곡 '바다의 소녀'의 리허설이 겪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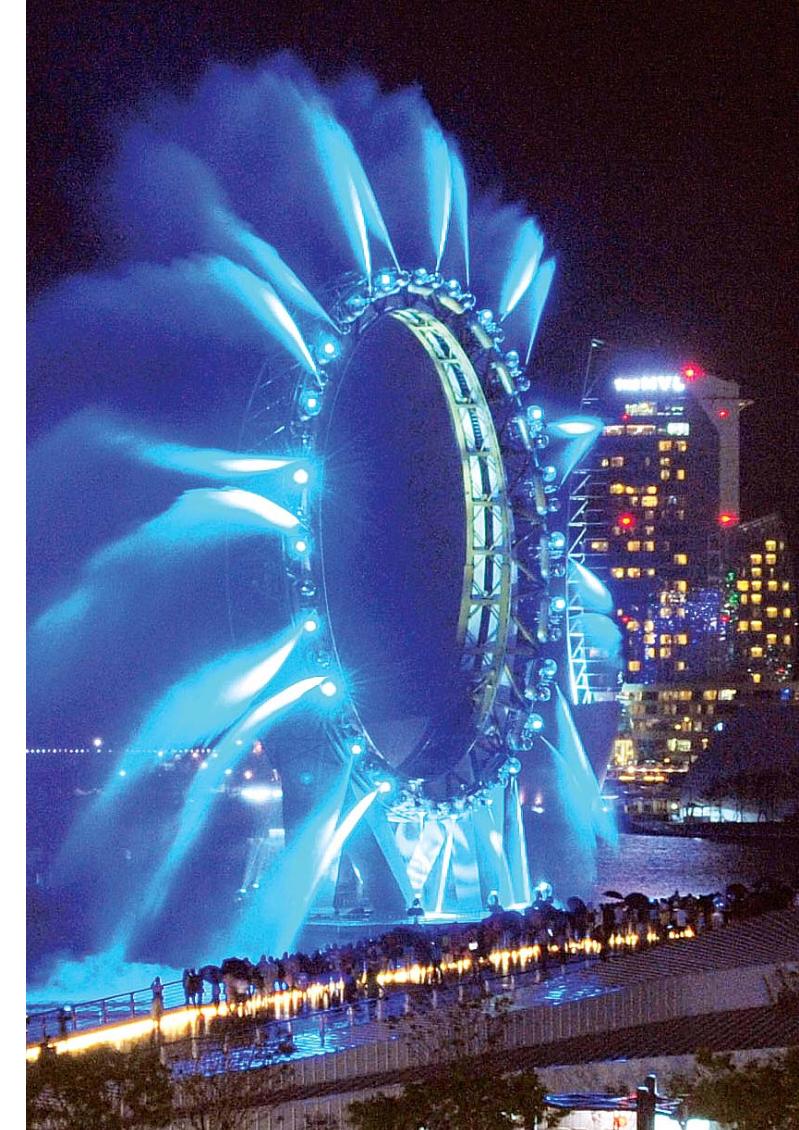
또 전시장 입장을 기다리는 관람객을 위해 브리스밴드, 피에로, 마술, 버블 쇼 등 90회의 문화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도르래가 매달린 줄을 사람이 잡아당겨, 차량에 실린 11m 높이의 대형 목각 인형을 움직이게 하는 거리 행진은 관람객의 찬사를 이끌어냈다.

가장 늦게 전시장 연출에 들어간 각국 국가관과 공동국가관, 국제기구관 등도 이날 막바지 작업을 벌였고, 박람회장 주변 도로도 개막 전 완공을 목표로 야간 작업 중이다.

이날 예행연습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30~40대가 60%를 차지, 교육적인 요소와 이색 볼거리가 풍부한 이번 박람회의 성공을 예감할 수 있게 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예행연습 과정의 전시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있으며, 개막 전까지 모두 개선 할 것"이라면서 "재미있고 효율적인 전시로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겠다"고 밝혔다.

/여수=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5일 밤, 여수세계박람회 해상무대에 설치된 '디오'에서 뿐어서 나온 물줄기와 환상적인 조명이 밤바다를 물들이고 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

으며 전병현 후보는 28표로, 이낙연 후보는 14표에 그쳐 탈락했다.

내부 역량을 최대화하는 것이 박 원내 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학 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2012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일시 2012년 6월 10일(일) 오전 8:30

장소 광주 상무시민공원

종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참가신청 홈페이지 접수 www.pinkcampaign.com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9744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손목 아대

